

『紅樓夢』의 唐詩的 要素 考察¹⁾

조현주*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曹雪芹의 詩作 風格
- III. 書名 및 人名의 取意와 唐詩
- IV. 『紅樓夢』 詩詞에 보이는 唐詩風
 1. 唐詩의 직접 인용
 2. 唐詩의 변용
- 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

대표적인 敍事文學 中國古典小說에서는 唐傳奇이래 詩歌成分을 자주 운용하였다. 清代에 등장한 『紅樓夢』 역시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紅樓夢』은 敍事文學이면서도 작품 전체에 詩的 분위기가 농후하며 작품에 들어있는 詩歌의 수와 질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특히 『紅樓夢』에 포함되어 있는 詩에는 唐代 詩人들의 作法을 취한 것이 많으며, 格律이나 意境 등이 唐詩와 비슷한 곳도 많다. 일부의 시들은 唐詩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1) 이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 교육연구단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紅樓夢』의 書名과 주인공 賈寶玉과 薛寶釵의 命名도 唐詩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紅樓夢』에서 唐詩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는 것은 曹雪芹 자신이 ‘小說家’이기 전에 ‘詩人’으로, 詩作 風格이 唐詩에 상당히 근접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曹雪芹의 손끝에서 탄생한 『紅樓夢』 곳곳에서 唐詩의 흔적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唐詩가 작품 속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曹雪芹은 모든 詩歌성분을 활용함에 있어 자신이 미리 짜놓은 구상에 따라 적재적소에 詩詞를 배치하여 詩詞자체로서의 효과는 물론 작품의 敘事效果를 극대화시켰다.

국문 키워드: 紅樓夢, 詩歌, 唐詩, 曹雪芹, 敘事文學

I. 들어가는 말

中國의 古典詩歌는 詩經과 楚辭에서 비롯되어 唐代에 이르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極盛하게 된다. 특히 近體詩의 발생은 中國文學史上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唐代 290년간 우수한 詩歌作家들이 다수 출현하였고 우수한 작품들도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형식의 完整함과 내용의 다채로움으로 唐詩는 前代未聞의 全盛을 이루게 되고 후대 詩歌文學 뿐 만 아니라 여타 문학 장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표적인 敘事文學인 中國古典小說에서는 唐 傳奇이래 詩歌成分을 자주 운용하였다.²⁾ 이러한 형식은 宋元 話本小說, 明清의 長篇,

2) 魏晉時代의 『搜神記』, 『拾遺記』, 『幽明錄』 등의 志怪에도 詩歌를 이용한 예가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中國古典小說의 시작은 唐 傳奇로 보는 것이 定說이고, 또 志怪에 보이는 詩歌의 수가 극히 적기에 차치하기로 한다.

短篇 小説을 거쳐 晚淸의 才子佳人小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淸代에 등장한 『紅樓夢』³⁾ 역시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紅樓夢』은 敍事文學이면서도 작품 전체에 詩的 분위기가 농후하며 작품에 들어있는 詩歌의 수와 질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특히 『紅樓夢』에 포함되어 있는 詩에는 古體詩와 비교했을 때 近體詩가 그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체제도 더욱 온전하고 詩의 수준 역시 더 높다. 또한 唐代 詩人들의 作法을 취한 것이 많으며, 格律이나 意境 등이 唐詩와 비슷한 곳도 많다. 일부의 시들은 古人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唐詩가 상당수 차지한다.

이제 본고에서는 『紅樓夢』에서 唐詩가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을 시도해 보고, 이러한 唐詩적 요소가 작품에서 가지는 효과와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曹雪芹의 詩作 風格

먼저 『紅樓夢』의 詩詞⁴⁾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가 曹雪芹의 詩才와 詩作 風格을 살펴보겠다. 그리하여 그의 詩作에 唐詩風의 요소가 들어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관계

3) 『紅樓夢』은 淸代 乾隆年間(1754년 甲戌年)에 『脂硯齋重評石頭記』(약칭 『石頭記』)라는 書名으로 처음 世間에 등장하였다. 『紅樓夢』의 版本은 80回本과 120回本이 있는데, 이 중 80回本은 曹雪芹 생존당시 北京에서 나온 筆寫本이다. 후에 高鶯이 修補하여 만든 120回本을 1791년경 程偉元이 刊行한 것이 程甲本이다. 또 程甲本을 改訂하여 1792년에 刊行한 것이 程乙本이다.

4) 본고에서는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紅樓夢』 전80회에 들어있는 詩詞에 한정하고자 한다. 현재 『紅樓夢』의 작가가 曹雪芹이라는 견해는 거의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曹雪芹이 『紅樓夢』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를 高鶯이 修補하여 120회본 『紅樓夢』을 출간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紅學界에서는 後40회의 작가가 누군가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前80회를 曹雪芹의 작품으로 보고 後40회는 高鶯의 續作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高鶯을 단순 정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後40회가 前80회와 비교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완성도도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前80회에 들어있는 詩詞를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가 있는지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曹雪芹은 ‘小說家’이기 전에 ‘詩人’으로, 시인의 기질이 다분하고 시에 정통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紅樓夢』 전체에 모두 200여 수가 넘는 많은 詩詞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曹雪芹의 이름으로 지어진 詩 작품은 고작 半 수가 남아 있을 뿐이다.⁵⁾ 그렇기 때문에 曹雪芹 자신의 詩 작품을 통해서 시 창작 경향이나 그의 詩作 風格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에 그의 交遊 및 친구들의 문집에 보이는 자료를 근거로 고찰해 보겠다.

曹雪芹은 愛新覺羅 敦誠, 愛新覺羅 敦敏 형제와 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敦敏 형제는 清代 宗室의 유명한 시인으로 乾隆年間에 활동하였다. 曹雪芹과 敦敏 형제 및 그 주위의 詩友들은 비슷한 처지와 문학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무리를 형성하여 문학 활동, 특히 시 창작 활동을 하며 교류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曹雪芹의 思想과 문학창작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嘯亭雜錄』의 기록에 따르면 敦敏 형제는 晚唐의 시를 추종했으며 시의 풍격이 소탈하고 꾸밈이 없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⁶⁾ 그렇다면 敦敏 형제와 활발히 교류하였던 曹雪芹도 이들과 유사한 경향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曹雪芹의 詩風은 敦誠의 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敦誠은 曹雪芹의 시를 “그대의 시에 奇氣가 있음을 좋아하니, 李賀가 籬樊를 깨트린 것을 따랐다네”⁷⁾라고 읊었고 “그대의 詩膽이 예부터 무쇠와 같다”⁸⁾고 평하면서 그를 唐代 시인 李賀에 비교하였다. 사실 曹雪芹의 시는 詩想이 특이하고 新奇하며 構想과 意境에 있어서 李賀와 비슷하다고 평가되었다. 또 “그대의 詩膽이 예부터 무쇠와 같

5) “白傳詩靈應喜甚，定教蠻素鬼排場。”敦誠，『鶴鷄庵筆塵』，『四松堂集』。

6) 昭槤，『嘯亭雜錄』卷二：“……自王公至閑散宗室，文人代出。紅蘭主人·博問亭將軍·塞曉亭侍郎等，皆見於王漁洋·沈確士諸著作。其後繼起者，紫幢居士文昭，爲饒餘親王曾孫，著有『紫幢詩鈔』。宗室敦誠，爲英親王五世孫，與弟敦敏齊名一時，詩宗晚唐，類多逸趣……”李廣柏，『曹雪芹評傳』(南京：南京大學出版社，1998)，105쪽에서 재인용。

7) “愛君詩筆有奇氣，直追昌谷破籬樊。”敦誠，『寄曹雪芹』，『四松堂集』。

8) “知君詩膽昔如鐵。”敦誠，『佩刀質酒歌』，『四松堂集』。

다”라는 구절은 曹雪芹 시의 풍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詩膽⁹⁾이란 사상과 견해를 표현하는 시인의 담력과 창조의 용기를 일컫는다. 시인이 시를 짓는데 있어서 창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속박과 장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詩膽과 용기가 필요하다. 曹雪芹은 바로 이러한 詩膽을 가지고 있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개성과 창작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敦誠의 시를 통해 曹雪芹이 詩才와 詩膽을 겸비한 훌륭한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曹雪芹이 세상을 떠난 후 敦誠이 지은 哀悼詩에 “우귀는 글을 지어 이하를 슬퍼하고, 녹거 끝머 유명을 장사 지내네”¹⁰⁾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는 이 두 구를 이용하여 曹雪芹을 재주는 높으나 박명한 삶을 살았던 시인 李賀에 비교하는 동시에 또 예법을 무시하고 음주를 즐겼던 시인 劉伶에 비교하였다. 또 다른 敦誠의 시에는 曹雪芹을 언급하면서 “시는 이하를 쫓고”, “광기는 완적보다 더 하다”라고 하였다.¹¹⁾ 李賀의 시는 대부분 懷才不遇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쓴 것이 많았다. 또 詩想이 특이하고 構想이 정교하며 前人을 답습하지 않았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풍격을 가지고 있었다. 敦誠이 曹雪芹을 이러한 李賀에 비유한 것은 曹雪芹의 시 창작 태도와 시 풍격이 이하와 많이 유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曹雪芹은 한사람의 시인으로서 타고난 시인의 기질에 詩才도 상당히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詩友들과의 교류를 통해 曹雪芹은 자연스럽게 이들과 유사한 시풍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唐詩의 풍격을 애호하고 특히 李賀의 시풍과 유사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曹雪芹의 문학적 재능과 作風의 형성에 집안의 영향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曹雪芹의

9) 이에 대해 清代 詩論家 葉燮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昔賢有言, ‘成事在膽, 文章千古事, 苟無膽, 何以能千古乎? 吾故曰: 無膽則筆墨畏縮. 膽既詘矣, 才何由而得伸乎?’ 葉燮, 『原詩·內篇下』, 『清詩話』(上海古籍出版社, 1982), 581쪽.

10) “牛鬼遺文悲李賀, 鹿車荷鍤葬劉伶.” 敦誠, 『輓曹雪芹』, 『鶴鶴庵雜記』.

11) “……詩追李昌谷……狂於阮步兵.” 敦誠, 『苻庄過草堂命聯聯句』, 『四松堂集』.

집안은 家學 전통이 있고 학문의 氣風이 농후하여 대대로 문학적 애호와 조예가 상당히 깊었다. 특히 祖父인 曹寅은 清代의 文人이자 藏書家가로 문학적 才氣와 조예가 상당히 뛰어났던 인물로, 中國古典詩歌史上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인 『全唐詩』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모두 900권으로 2,200여 시인의 작품 48,00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紅樓夢』에는 唐代 시인의 詩句가 상당수 들어있는데, 아마도 조인의 『全唐詩』 간행이 曹雪芹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심을 증폭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曹寅은 또한 대단한 藏書家였는데 그가 소장하고 있던 藏書는 모두 3287종으로 『棟亭書目』4권¹²⁾에 가장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藏書는 曹雪芹에게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Ⅲ. 書名 및 人名의 取意와 唐詩

『紅樓夢』에 보이는 悲劇적 詩美學은 中國詩歌悲劇美學傳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중 唐詩의 영향이 매우 크다. 書名에서도 이러한 점은 매우 잘 드러난다. 『紅樓夢』이란 書名은 원래 ‘紅樓의 허망한 꿈’이란 뜻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대한 저택, 아름다운 여성들이 화려한 삶을 영위하는 규중을 의미하는 紅樓의 세계가 결국은 물거품과 같이 슬픔만 남기고 꿈으로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唐詩 중에는 ‘紅樓’를 意象으로 한 詩句가 적지 않다. 『紅樓夢』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이러한 詩에서 그 의미를 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혹자는 ‘紅樓’라는 이름이 唐代 白居易의 시 “紅樓富家女, 金縷綉羅襦”에서 나왔다고 하고¹³⁾, 혹자는 書名の 出處를 晚唐 시인 蔡京의 『詠子規』, “驚破紅樓夢里心”이란 구절로 보기도 한다.¹⁴⁾ 이 외에도 또 韋藏의 시 『長安春』, “長安春色本無主, 古來盡屬紅樓

12) 『棟亭書目』은 『遼海叢書』(有遼瀋書社 1985年 影印本)에 수록되어 있다.

13) 夢覺主人이 『紅樓夢』 甲辰本 序言에서 언급.

14) 吳汝焯, 『蔡京小傳』: 『詠子規』, “驚破紅樓夢里心, 爲著名小說『紅樓夢』取爲書名.

女”에도 ‘紅樓’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특히 주목할 시는 바로 李商隱의 시 『春雨』이다.

悵臥新春白袷衣, 새 봄에 흰 내의 입고 쓸쓸히 누워
白門寥落意多違. 백문의 쓸쓸한 일 생각하니 마음마다 어긋나네.
紅樓隔雨相望冷, 홍루 너머 비 내리는데 바라보니 날은 차가워
珠箔飄燈獨自歸. 주렴에는 흔들리는 등불 나 혼자 돌아온다.
遠路應悲春晚晚, 먼 길, 이 봄날 저녁에도 그대는 슬퍼하리
殘宵猶得夢依稀. 잠 못자고 남은 밤을 꿈꾸어 그대를 본 듯 하여라.
玉塘緘札何由達? 구슬 귀고리와 나의 편지 어떻게 보낼까?
萬里雲羅一雁飛. 만리 긴 구름 비단에 기러기 한 마리 날아간다.

이 시에서 표출되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터 생겨난 상심과 풀길 없는 ‘悲情’은 『紅樓夢』의 비극적 색채 및 비극적 격조와 비견된다. 그러므로 서명을 취함에 있어 李商隱의 <春雨>에서 단순히 ‘紅樓’라는 글자만이 아니라 그 의미와 意象까지도 함께 取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명뿐만 아니라 『紅樓夢』의 주요등장인물인 賈寶玉과 薛寶釵의 이름도 그 出處를 唐詩로 볼 수 있다. 『紅樓夢』 제62회에서 등장인물 香菱의 입을 빌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상운이 말했다.

“보옥’ 두 글자가 무슨 출처가 있어? 설날 對聯에나 쓸까 (詩書의 기록에는 없으니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자 향릉이 말했다.

“전에 岑參의 오언 율시를 읽다보니까 ‘이 마을엔 보옥이 많이 난다’¹⁵⁾는 구절이 틀림없이 있었다니까요. 아가씨는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중에 李商隱의 칠언 절구를 읽다가 ‘보차에는 먼지 끼지 않는

15) 이 구절은 嘉州 岑參의 『送楊瑒尉南海』라는 시에 보인다.

날이 없구나¹⁶⁾하는 구절도 보았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의 이름이 알고 보니 唐詩 구절에서 온 것이로구나 하고 웃으면 말한 적이 있죠.”¹⁷⁾

즉 ‘寶玉’이라는 이름은 岑參의 시 『送楊瑗尉南海』에서 따온 것이고, ‘寶釵’라는 이름은 李商隱의 시 『殘花』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겠다.

사실 중당 시인 張籍의 『寶釵曲』과 李賀의 시 『少年樂』에서도 ‘寶釵’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나 소설에서 특별히 李商隱 시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은 ‘無日不生塵’의 비극적 의미를 借重하기 위한 것이다. 즉 薛寶釵가 賈寶玉의 出家 후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게 됨을 암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紅樓夢』의 書名과 주요등장인물의 人名도 唐詩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紅樓夢』 詩詞에 보이는 唐詩風

1. 唐詩의 직접 인용

『紅樓夢』에서는 인물의 대화 중에 古詩가 언급되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詩가 지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 중에는 原詩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唐詩 중에 인용된 것이 상당수 있다. 몇 가지 주요한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5회 ‘金陵十二釵判詞’의 又副冊判詞 중 첫 번째에서 ‘彩雲易散¹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中唐 白居易의 『簡簡吟』 “大都好

16) 이 구절은 義山 李商隱의 <殘花>라는 시에 보인다. ‘無’字는 原詩에서는 ‘何’로 되어 있다.

17) 湘雲道: “寶玉二字並無出處, 不過是春聯上或有之, 詩書紀載並無, 算不得.” 香菱道: “前日我讀岑嘉州五言律, 現有一句說‘此鄉多寶玉’, 怎麼你倒忘了? 後來又讀李義山七言絕句, 又有一句‘寶釵無日不生塵’, 我還笑說他兩個名字都原來在唐詩上呢.” 『홍루몽』 제62회.

18) 靄月難逢, 彩雲易散.
心比天高, 身爲下賤.

物不堅牢, 彩雲易散琉璃脆”라는 구절에 그대로 보인다.

제15회에서 등장인물간의 대화에 언급이 되고 있는 “어린 봉황이 늙은 봉황보다 청아한 소리를 내는구나(雛鳳清於老鳳聲)”란 구절은 李商隱의 시 <韓冬朗即席爲詩相送, 一座盡驚>에서 나온다.

十歲裁詩走馬成, 어린 나이인데도 시적 감흥이 매우 민첩하고,
冷灰殘燭動離情. 꺼질 것 같은 등불 앞에서도 이별의 정서를
자아내는구나.

桐花萬里丹山路, 단산의 만리 길엔 오동나무 꽃이 화창한데,
雛鳳清於老鳳聲. 어린 봉황이 늙은 봉황보다 청아한 소리를
내는구나.

이 시는 李商隱과 교분이 두터웠던 韓瞻의 아들 韓偓을 두고 쓴 것이다. 韓偓은 열 살 때 이미 즉석에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李商隱이 시를 통해 그가 부친 韓瞻(老鳳)보다 시적 감흥이 더 뛰어났음을 인정한 것이다. 제15회의 北靜王 水溶과 賈寶玉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北靜王 水溶이 賈政에게 한 말 중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장차 아들이 부친보다 뛰어날 것을 비유하고자 한 것이다.

또 같은 회에 보이는 “誰知盤中餐, 粒粒皆辛苦” 구절은 中唐 시인 李紳의 다음 시에서 두 구를 모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鋤禾日當年,	김매는 데 해는 대낮,
汗滴禾下土.	땀방울이 곡식 밑의 흙에 떨어지네.
誰知盤中餐,	그릇에 담긴 밥이
粒粒皆辛苦.	알알이 모두가 피로움을 뉘 알까.19)

이렇게 『紅樓夢』에서는 등장인물간의 대화 중 적재적소에 古詩를

風流灵巧招人怨. 壽夭多因毀謗生, 多情公子空牽念. 『紅樓夢』 제5회.

19) 『閨農2首』(또는 古風2首라고도 함), 『전당시』 권483.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하나의 속담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하겠다.

또 『紅樓夢』에는 등장인물들이 일상적인 유희로 즐기기 위해 詩詞를 짓거나 酒盞을 짓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옛 시인의 詩句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古詩나 宋代의 詞도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唐詩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40회에서 대부인은 酒筵을 열고 여기에 참가한 인물들은 酒盞을 지으면서 詩詞歌賦는 물론 成語와 俗語를 사용하여 짓기로 한다. 이 대목에서는 인용된 詩句가 7수 모두 唐詩에서 따온 것임을 볼 수 있다. 그 구절은 아래와 같다.

雙懸日光照乾坤.	李白的「上皇西巡南京歌」
閑花落地聽無聲.	中唐 劉長卿의 「別嚴士元」
日邊紅杏倚雲栽.	晚唐 高蟾의 「下第後上永崇高侍郎」
水荇牽風翠帶長.	杜甫의 「曲江對雨」
三山半落青天外.	李白的「登金陵鳳凰臺」
雙瞻玉座引朝儀.	杜甫의 「紫宸 殿退朝口號」
桃花帶雨濃.	李白的「訪戴天山道士不遇」

제70회에서는 林黛玉이 지은 「桃花行」을 賈寶玉이 누가 지은 것인지 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두보를 언급하고 있다.

보차가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른다는 거야. 아무리 두공부의 시라고 해도 시마다 ‘국화꽃 다시 피니 눈물이 볼을 적시네’하는 글귀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 그 가운데는 ‘방긋이 피는 매화꽃 봄비에 탐스럽네’라든가 ‘수초 바람에 끌려 푸른 띠를 늘어 뜨렸구나’라는 글귀들도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²⁰⁾

20) 寶釵笑道：“所以你不通。難道杜工部首首只作‘叢菊兩開他日淚’之句不成！一般的也有‘紅綻

여기에서 나오는 ‘叢菊兩開他日淚’ 구절은 『秋興 1首』에서 가져온 것이고 ‘紅綻雨肥梅’ 구절은 『陪鄭廣文遊何將軍山林10首』 5首에서 인용한 것이다. 또 ‘水荇牽風翠帶長’은 『曲江對雨』의 한 구절이다.

이렇게 『紅樓夢』에는 唐詩에서 原句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인용한 것이 많이 보인다.

2. 唐詩의 변용

『紅樓夢』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詩句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古詩의 구절이나 意境을 기초로 재단과 가공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詩句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제 『紅樓夢』에 들어있는 시 중 唐詩의 詩句를 ‘脫化’하거나 ‘換骨奪胎’하여 나온 것을 살펴보겠다.

제27회에는 芒種節에 大觀園의 주요 인물들이 한 곳에 모여 花神을 제사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大觀園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이러한 유쾌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林黛玉은 홀로 꽃장례를 지내며 슬프고 처량한 곡조의 『葬花辭』를 짓는다.

花謝花飛花滿天,	꽃이 저 우수수 하늘 가득 흩날릴 제
紅消香斷有誰憐?	빛깔 잃고 향기 멎은들 그 누가 슬퍼하랴.
游絲軟繫飄春樹,	실버들 하늘하늘 난간새에 나무끼고
落絮輕沾撲繡簾.	버들꽃솜 몽실몽실 비단발에 서러붙네.
閨中女兒惜春暮,	규중의 아가씨는 가는 봄이 안타까워
愁緒滿懷無釋處,	가슴 속에 서린 시름 풀 길이 없네.
手把花鋤出繡閨,	꽃갈퀴 손에 들고 뜰에 나섰건만
忍踏落花來復去.	떨어진 꽃잎 밟을까 서성거리네.
.....	
花開易見落難尋,	피는 꽃은 보기 쉬워도 지는 꽃은

雨肥梅; ‘水荇牽風翠帶長’之媚語.” 『홍루몽』 제70회.

	찾기 어려워
階前悶殺葬花人,	뜰앞에서 서러워하는 꽃장례 지내는
	사람이여.
獨倚花鋤淚暗洒,	홀로 꽃 갈퀴 들고 남몰래 눈물을 짓더니
洒上空枝見血痕.	꽃가지에 뿌려 올려 핏자국 새겨놓네.

.....

이 시는 林黛玉이 늦은 봄꽃이 지는 광경을 목도한 후 자신의 신세와 운명이 그 꽃과 같음을 한탄하여 지은 것이기에 全篇에 哀傷과 悲觀이 짙게 배어있다. 曹雪芹은 이 시를 통하여 林黛玉의 悲劇의 形象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李商隱의 「落花」를 보도록 하겠다.

高閣客竟去,	높은 누각에 객은 끝내 떠나가고
小園花亂飛.	작은 동산엔 꽃잎만 어지러이 날린다.
參差連曲陌,	들쭉날쭉 굽은 길이 이어지고
迢遞送斜暉.	멀리서 지는 햇볕 비쳐온다.
腸斷未忍掃,	창자가 끊어져 차마 낙화 쓸지 못하고
眼穿仍欲歸.	눈은 뚫어져라 다시 땀을 보려 한다.
芳心向春盡,	꽃다운 마음 봄을 향해 다했는데
所得是沾衣.	얻은 것은 눈물에 젖은 옷소매뿐.

이 시의 意境이 『紅樓夢』의 詩歌 중 絶唱이라 할 수 있는 「葬花辭」와 상당히 흡사함을 알 수 있다. “腸斷未忍掃”, “芳心向春盡, 所得是沾衣” 등의 구절과 ‘愛花’, ‘惜花’, ‘悲花’하는 시인의 심경이 『紅樓夢』의 「葬花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葬花辭」의 “花謝花飛花滿天” 구절은 李賀의 시 「上雲樂」의 “飛香走紅滿天春”에서 나온 것 이라 볼 수 있다. “花謝花飛花滿天”은 늦은 봄 변화하던 꽃들이 떨어져 휘날리는 모습을 형용하고 있는데, 이는 李賀가 읊은 “飛香走紅滿天春”과 매우 비슷하다. 단지 李賀의 시는 ‘春’, ‘紅’자를 사용하여 ‘花’를 대신하고 있고, ‘飛香走紅’으로 후각적

향기와 시각적 색채를 응결시켜 매우 정련되고 조탁한 맛이 난다. 그러나 『葬花辭』에서는 직접적으로 ‘花’字를 사용하여 ‘花謝花飛’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고 있어 좀 더 리듬감이 증가되었을 뿐이다.

“落絮輕沾撲繡簾” 구절은 晚唐 張泌의 『春晚謠』²¹⁾ “凌亂楊花撲繡簾” 구를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미가 절반은 지고 안개비가 조용히 내리는 늦은 봄에 張泌이 묘사한 “凌亂楊花撲繡簾”하는 광경은 『葬花辭』에서 임대옥이 읊은 “落絮輕沾撲繡簾”과 꼭 같다. ‘落絮’와 ‘楊花’라는 차이가 있을 뿐 ‘撲繡簾’의 動態描寫는 한글자도 틀리지 않다. 意象, 造景, 용어에 있어서 모두 비슷하기에 曹雪芹이 張泌의 시를 脫化하여 지은 흔적이 매우 뚜렷하다.

이처럼 조설근이 『葬花辭』를 지으면서 構想, 意境, 詩語 등에 있어서 前人의 시를 여러 점에서 습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李商隱의 『花下醉』를 보자.

尋芳不覺醉流霞,	향기 찾아 나도 몰래 취하여
依樹沉眠日已斜.	나무에 기대어 잠들어 날은 이미 저물어
客散酒醒深夜後,	손님은 다 가고 술 깨어보니 이미 깊은 밤
更持紅燭賞殘花.	다시 촛불 가져와 남은 꽃들 구경한다.

이 시는 자연스럽게 『紅樓夢』 제62회의 回目 “湘雲은 술에 취해 작약꽃밭 아래 누웠고, 香菱은 정에 끌려 석류치마 바꿔 입었네(愁湘雲醉眠芍藥裯, 呆香菱情解石榴裙)”를 떠올리게 한다. 李商隱의 시와 回目的 構想과 意境이 상당히 유사하다.

제50회에 등장하는 매화시 중 李紋이 지은 시에서는 李賀 시를 연상케 하는 구절이 보인다.

21) 雨微微, 煙霏霏, 小庭半折紅薔薇, 細箏斜倚畫屏曲, 零落幾行金雁飛, 蕭關夢斷無尋處, 萬疊春波起南浦. 凌亂楊花撲繡簾, 曉窓時有流鶯語.

詠紅梅花得‘梅’字

白梅懶賦賦紅梅,
逞艷先迎醉眼開.
凍臉有痕皆是血,
醉心無恨亦成灰.
誤吞丹藥移眞骨,
偷下瑤池脫旧胎.
江北江南春燦爛,
寄言蜂蝶漫疑猜.

백매화를 읊고 나서 홍매화를 읊나니
요염한 그 자태 취한 눈앞에 드러났도다
언 뺨에 얼룩졌음은 핏자국이런가
쓰라린 마음 그지없어 재가 되었나와
단약을 잘못 먹어 뼈가 변한 건가?
요지로 몰래 와서 옛 태를 벗은 건가?
강남, 강북에 봄빛은 무르녹아도
벌들아, 나비들아, 봄꽃인가 말아라

이 시에서 “凍臉有痕皆是血” 구절은 李賀의 시 『楊生靑花紫石硯歌』 “傭剗抱水含滿脣，暗澆萋弘冷血痕”에서 그 연원을 가진다. “暗澆萋弘冷血痕”에서 “有痕皆是血”의 의상과 정경을 유도하였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단지 李賀의 시는 본래 ‘靑花紫石硯’의 모양을 읊은 것이고 여기에서는 홍매화의 모습을 읊은 것으로 비유의 대상이 약간 다를 뿐이다.

제70회에서 林黛玉은 桃花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빗대어 悲歌를 짓는다.

桃花簾外東風軟,
桃花簾內晨妝懶.
簾外桃花簾內人,
人與桃花隔不遠.
東風有意揭簾櫳,
花欲窺人簾不卷.
桃花簾外開仍舊,
簾中人比桃花瘦.
花解憐人花也愁,
隔簾消息風吹透.

주렴 밖의 복사꽃 봄바람에 사랑대는데
주렴안의 복사꽃은 아침 화장 게을러라.
주렴밖엔 복사꽃, 주렴 안엔 아가씨
아가씨와 복사꽃 주렴 하나 사이에 두었네.
바람은 생각있어 주렴을 걷고자 하고
꽃은 사람을 보려고 주렴을 원망하네.
주렴 밖의 복사꽃은 예나 다름없건만
주렴 안의 아가씨 꽃보다 여위었구나.
꽃이 여인이라면 꽃도 슬피하러니
주렴너머 봄소식 바람에 실어 보내네.

.....

여기에서 “花解憐人花也愁” 구절은 李賀의 「金銅仙人辭漢歌」의 “天若有情天亦老”에서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句式, 構想, 擬人化 수법에 있어서 고심하여 모방한 흔적이 역력하다. “霧裏煙封一萬株”는 李賀의 「昌谷北園新荀四首」 중 2수의 “露壓煙啼千萬枝”와 단어, 의경이 매우 비슷하다. 단지 차이로 함은 읊은 대상이 ‘綠竹’에서 ‘紅桃’로 옮겨간 것일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曹雪芹의 詩友들은 曹雪芹을 이하에 비유하였는데, 이렇게 『紅樓夢』의 시 중에는 이하의 시를 습용한 것이 상당수 보인다.

제76회에서 林黛玉, 史湘雲이 聯句를 짓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輕寒風剪剪” 구절은 만당 韓偓의 「寒食夜」 “惻惻輕寒翦翦風”에서 습용한 것이라 할 있겠다. 단지 七言을 五言으로 축약한 것이라 할 만 큼 사용된 字句가 매우 비슷하다.

또 제76회에 보이는 “寒塘渡鶴影” 구절은 “가을밤 차가운 독 위로 학의 그림자가 스쳐지나간다”는 뜻으로 杜甫의 “새 그림자는 차가운 독 위로 지나가네(鳥影度寒塘).”라는 구절을 바꾸어 쓴 것인 듯하다.

이상으로 『紅樓夢』에 등장하는 詩 중에 唐詩에서 변용된 것들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예로 든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시인의 詩가 『紅樓夢』에서 그 모습을 새로이 하여 등장하고 있다.

V. 나오는 말

『紅樓夢』은 中國古典小說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러면서도 또한 『紅樓夢』은 敍事文學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에 詩의 분위기가 농후하고 詩의 감성이 충만하다. 작품 속에 삽입된 詩詞도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紅樓夢』의 詩詞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시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唐詩를 원형으로 하는 詩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書名 및 주요 등장인물의 命名은 물론 삽입된 詩詞 곳곳에서 唐詩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중에는 唐詩의 구절을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있고, 唐詩의 格律이나 意境 등을 변용한 것들도 상당

수 보인다.

이렇게 『紅樓夢』에서 唐詩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는 것은 曹雪芹 자신이 ‘小說家’이기 전에 ‘詩人’으로, 詩作 風格이 唐詩에 상당히 근접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全唐詩』를 간행한 祖父인 曹寅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曹雪芹의 손 끝에서 탄생한 『紅樓夢』 곳곳에서 唐詩의 흔적이 보이는 것은 當然之事이며, 唐詩가 작품 속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紅樓夢』과 唐詩와의 연관성에 대해 초보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하여 唐詩가 『紅樓夢』에서 曹雪芹이라는 ‘詩人’이자 小說家에 의해 직접 인용되거나 변용되어 활용되었다는 可視的인 사실만을 확인하였다. 사실 『紅樓夢』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詩歌성분들은 작품 속에 무의미하게 자리하고 있지도 않고, 단순히 작품에 詩的 분위기를 부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曹雪芹은 모든 詩歌성분을 활용함에 있어 자신이 미리 짜놓은 구상에 따라 적재적소에 詩詞를 배치하여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특정부분에 특정 唐詩가 배치되었다면 그것은 서사 전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고찰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小說 原典 및 翻譯書

曹雪芹, 高鶚 著, 『紅樓夢』(上下), 北京 : 人民文學出版社, 1996.

안의운, 김광렬, 『完譯紅樓夢』 전7권, 청년사, 1990.

연변대학紅樓夢번역소조번역, 『紅樓夢』, 예하, 1990.

2. 單行本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서울 : 明文堂, 1994.

胡曉明 著, 『紅樓夢與中國傳統文化』, 武漢 : 武漢測繪科技大學出版社, 1996.

中國小說研究會 編,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고방, 1998.
蔡義江 著, 『紅樓夢詩詞曲賦鑑賞』, 北京: 中華書局, 2001.

歐麗娟 著, 『詩論紅樓夢』, 臺北: 里仁書局, 2001.

이계주 지음, 『紅樓夢시사간론』, 서울: 다운샘, 2005.

3. 論文

李桂柱, 「紅樓夢詩詞序說」, 『漢陽大論文集』 제31집, 1990.

宋眞榮, 「『紅樓夢』의 悲劇性 연구」, 梨花女大 碩士學位論文, 1992.

秦德君, 「論『紅樓夢』詩詞曲賦的藝術價值」, 『東岳論叢』 1995年 第1期,
1995

姜志軍, 「古雅: 『紅樓夢』詩詞的文化氣脈」, 『紅樓夢學刊』 1996年 第1輯.

于景祥, 「『紅樓夢』運用多種詩歌體式的傑出成就」, 『紅樓夢學刊』 1997年
第2輯, 1997.

이동향, 「唐詩의 修辭 研究」, 『寒國中國語文學會』 제25집, 1996.

姜志軍, 「論『紅樓夢』詩詞對優秀傳統文化的吸納」, 『紅樓夢學刊』 2001年
第4輯, 2001.

林貞玉, 「唐詩의 內容과 特色攷」, 『中國人文科學』, 2002.

王慶雲, 「『紅樓夢』與李商隱」, 『文史哲』, 2002年 第4輯,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elementt of Tang poetry in *Honglouloumeng*(『紅樓夢』)

Jo, Hyun-ju

The Chinese classical novels as a representative narrative literature introduced a poetry elementary since the Tang Chuanqi(傳奇). Honglouloumeng(『紅樓夢』) in the Qing(清) dynasty has been inherited such culture also. Honglouloumeng(『紅樓夢』) is a narrative literature, but is imbued with the poetic mood on the all work and also the number and quantities of poetry within a work reaches a quiet level. Many poems within Honglouloumeng(『紅樓夢』) had taken composition method of poets in the Tang(唐) dynasty, and there are many similar parts with the Tang poetry such as Gelv(rules and forms of classical poetic composition:格律) or Yijing(意境). Also some poems have been quoted just as the Tang poetry. It presents that the book name of Honglouloumeng(『紅樓夢』) and the name of Jia Bao Yu(賈寶玉) and Xue Bao Cai(薛寶釵) who are heros in the book had been affected by the Tang poetry.

That Honglouloumeng(『紅樓夢』) were found influence by the Tang poetry is the reason why the style of composing of poem was close to the Tang poetry as Cao Xue Qin(曹雪芹) is a poet before a novelist. Therefore, it is natural for finding marks of the Tang poetry through Honglouloumeng(『紅樓夢』) that was written by Cao Xue Qin(曹雪芹), also the poem in the Tang dynasty was utilized appropriately within a work. While Cao

Xue Qin(曹雪芹) placed poetry in the right position in according with the concreted idea beforehand by himself when utilizing all of poetry elementary, he made not only itself poetry maximize but also the narration effects of a work maximize.

Key Words: Hong Lou Meng(『紅樓夢』), poetry, Tang poetry, Cao Xue Qin(曹雪芹), narrative literature

이 논문은 2010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7월 31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0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되었음.